전남도 행안부 지정 마을기업 19곳 선정

신규 13곳·재지정 6곳…전국 최다
인건비 등 3년간 최대 1억원 지원

전남도는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국 마을기업 152개소 중 가장 많은 19개소가 선정된 성과를 거뒀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신규 마을기업으로는 우수한 사업 기반과 경영 역량을 갖춘 시네마MM(목포시), 꽃보다프리마켓협동조합(여수시), 월등과수영농조합법인(순천시) 등 13곳이 선정됐다. 마을기업 가치 실현 및 운영성과가 뛰어난 기업에 주어지는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도 6곳이 지정됐다.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형 마을기업 육성과 시설·장비 및 고도화 지원 등 전남형 시책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한 결과가 이번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인건비, 운영비, 시설·자산취득비 등을 연차별로 나눠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규(1차년)의 경우 5000만원, 재지정(2차년) 3000만원, 고도화(3차년)는 2000만원이 주어진다. 3차년까지 선정되면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마을기업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이밖에 전국 최고기업에 주어진 '모두애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1억원, 우수한 경영실적으로 사회적가치를 실현한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운영실적이 저조하나 회생의지가 있고 재도약이 가능한 마을기업엔 마중물 사업비로 1000만원의 보조금도 지원된다.

지난해 전남지역에서는 여수 송시마을이 '모두애 마을기업'으로, 영광 지내들이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마을기업은 동일한 생활권(읍·면)을 기반으로 거주중인 주민들의 주도 아래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회원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 등을 갖춰야 한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한 마을기업들이 내실 있게 성장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럭무럭 자라 돌아오너라"…섬진강 어린연어 50만 마리 방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지난달 26일 섬진강 수계 동방천에서 '제24회 섬진강 어린연어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24회째인 이날 행사에선 어린연어 50만 마리가 방류됐다. 방류된 어린연어는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섬진강으로 회귀한 어미연어를 포획해 알을 받아 부화시킨 개체다.

어린연어는 섬진강에서 약 40일간 적응을 거쳐 태평양을 지나 머나먼 북태평양인 알래스카 부근까지 헤엄쳐 가서 성장하며, 알을 낳기 위해 고향인 섬진강으로 되돌아와 산란하는 대표적 회귀성 물고기다.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방류한 어린연어는 874만 마리다. 회귀량은 4692마리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섬진강어류생태관에서 매년 방류량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준택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섬진강의 보존가치를 높이기 위해 생태 지표생물인 연어자원의 보전은 물론 수산자원 조성 및 환경의식 고취, 연어류 어획량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 농수산식품 미국 이어 유럽연합 아마존 진출 11만7000달러 제품 선적식

전남도는 지난달 26일 aT 장성비축기지에서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9개사와 함께 EU 아마존 진출을 위한 첫 번째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지난 9일 미국 아마존 판매용 제품 24만6000달러 상당 선적식 이후 올 들어 두 번째다. 세계 두 번째로 큰 식품 소비시장인 EU지역 온라인 수출을 위한 첫 번째 포문을 열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번 EU 수출에는 현재 아마존 미국 전남 브랜드관에서 판매중인 68개 제품 중 가장 인기 있고 EU의 까다로운 식품 통관 규정에 문제가 없는 김 등 해조류를 비롯 고구마 가공식품, 건어물 스낵, 양파즙, 유자차, 유기농 표고버섯 등 15개 제품, 11만7000달러 상당의 제품이 선적됐다.

선적된 제품들은 독일 함부르크항을 통해 수입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 아마존을 통해 EU 전체 27개 국가에 판매하게 된다.

앞서 전남도와 9개 수출기업은 한-EU FTA에 따른 수출제품의 비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광주세관의 지원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완료하고, 각 제품에 4개국 언어로 영양성분표 등이 표기된 라벨을 제작해 부착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은 FTA 체결국 수출시 비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는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현재 유럽은 한류 영향으로 K-Food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각종 통관 규정과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한국 식품의 진출이 많지 않아 전남 수출기업에게 블루오션 지역이다"며 "수출기업들이 유럽시장 진출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달 EU 특허청으로부터 'Jeollanamdo, The Kitchen of Korea' 상표를 승인받았다. 4월 중 브랜드관 개설 후 EU 27개국을 대상으로 아마존을 통해 전남산 농수산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6일 오후 담양군 원산면 중월리 스마트베리팜에서 열린 프리미엄시장 개척 신품종 딸기 말레이시아 수출 상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남도, 신품종 딸기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죽향'과 '메리퀸' 2개 품종 수출

담양 신품종 딸기가 말레이시아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남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시장 개척에 나서 지난달 26일 담양 스마트베리팜에서 '신품종 딸기 말레이시아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 수출된 딸기는 '죽향'과 '메리퀸' 2개 품종으로 1200만원 상당 600kg 물량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 최형식 담양군수, 박종원·김기성 전라남도의원, 박서홍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이재연 NH농협 담양군지부장, 박귀석 월산농협장, 정영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홍재 농업기술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딸기 농업인 등이 참석했다.

전남산 딸기는 지난해 12월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 첫 수출이 시작됐다. 앞으로 동남아 최대 프리미엄 시장인 말레이시아에도 공급할 수 있게 돼 전남 딸기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농수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남도장터의 해외 쇼핑몰 입점과 해외 상설판매장 구축,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 입점, 남도이향 수출업체 확대, 수출전문단지 확대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남도장터' 농특산물 쇼핑몰 '최고 브랜드' 선정

전남도가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www.jnmall.kr)가 '2021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에서 농특산물 쇼핑몰 부문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진행된 '2021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에서 농특산물 쇼핑몰 부문에서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특히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 제공은 물론 지난해 매출액 326억원 돌파 등 농어가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올해는 지난해 6월말 돌파한 매출 100억원을 2월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도장터는 시장·군수가 엄선해서 추천한 1305개 업체의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 1만6463개 상품이 입점해 있다. 온라인 회원수도 29만7591명에 달한다.

그동안 남도장터는 코로나19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판매 촉진과 홍보를 발 빠르게 추진해 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중단으로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이 협업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추진했다. 또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매출을 확대하고, 국민 안내양TV와 으뜸전남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유튜브 홍보에도 나섰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소방, 건축공사장 소방시설 불량 12곳 적발

전남소방본부가 도내 건축 공사장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소방법령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산업안전공단 등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연면적 3000㎡이상 건축 공사장 113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12곳(10.6%)에서 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종류별로 임시소방시설 불량 14건,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4건,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2건 등이다.

이에 따라 소량위험물 취급 부주의, 위험물 임시저장 미승인 등 6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시소방시설 불량 등 14건은 조치명령서를 발부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도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엄격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계자 특별 안전컨설팅을 통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긴급상황 대비 대피 교육 등을 실시해 도내 건축 공사장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